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서울·경기 지역에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위한 정보 통합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을 지정하여,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 19일(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되었다.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및 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44-202-3860)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지숙 (044-202-3866)

□ **사업목적**

-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병원 이송·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내용**

- 정신응급 대응 현장 출동 요원(경찰, 소방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에게 대상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 및 여유병상 정보제공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여유병상 등 실시간 수집 하여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 자원 관리 가능
- 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 마련으로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 대응으로 대상자 및 대국민 안전 확보